

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<small>Ministry of Knowledge Economy</small>	http://www.mke.go.kr
‘12년 2월 2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문의 : 바이오헬스와 강혁기 과장, 이동원 사무관(2110-4761/5661)	

한국 u-헬스, 사우디 진출을 위한 실크로드 개척 - 이명박 대통령 사우디 순방 후속조치 일환으로 u-헬스 협력 사절단 파견 -

- 지식경제부는 20일 강혁기 바이오헬스과장, 코트라, 연세의료원 등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“u-헬스 협력 사절단”을 사우디에 파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사우디로 수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- 금번 민관 사절단 파견은 지난 2월초 이명박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, 지식경제부, 코트라,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연세의료원, 인피니트헬스케어, 바이오스페이스 등 병원 및 기업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.
- 사우디 보건부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로 구축된 디지털병원과 의료시스템에 대해 홍보하였다.
 - * 경기, 충북, 대구 3개 지역의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의 원격건강 관리 시범서비스 사업(10~13년)
 - 사우디 보건부 공무원과 의사들은 국내에서 u-헬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케어서비스* 시범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, 민간 병원(킹파드)을 방문하여 사우디 의료환경을 둘러보면서 u-헬스, 디지털 병원 수출 등에 대한 현지 수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.

- 금번 사절단 방문의 후속으로 금년 상반기 중 의료 IT를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사우디 측과 합의하였다.
 - 지식경제부는 서울에서 개최될 차기 회의에서 사우디 의료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u-헬스, 디지털병원을 포함한 한국의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고,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.
- 현재, 사우디는 막강한 석유자본력을 헬스케어 현대화에 투자 중이며, 8개의 메디컬시티를 건설한다는 계획 하에, 향후 5년 내에 100개의 중대형 병원과 1,000개의 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이며,
 - 비만·당뇨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질환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“국가 E-헬스 전략”을 병원운영을 위한 IT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- 한편, 사우디 언론에서는 금번 한국 사절단 방문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, 사우디 국영 TV(채널2) 아침 프로그램인 “굿모닝 사우디 아라비아”에서 한국의 u-헬스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방영할 예정이다.
 - * 2.23일(목) 방영예정(잠정)
 - 방송에 참가한 연세의료원 김용욱 교수는 “넓은 영토에 분산된 인구구조를 가진 사우디의 경우, 스마트폰 기반의 u-헬스가 도입된다면 만성질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국가의료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것”이라고 설명하였다.
- 한국디지털병원수출포럼 안병문 위원장은 “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”고 하였다.